

교회소식

-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 2013년 교회표어: 성령의 은혜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딤후3:14)
- ◎ **당회:** 8월 정기 당회가 오후 6시 계수실에서 있습니다.
- ◎ **수요예배:** 이번 주 수요 예배는 박성천 목사(바누아투 산토섬 선교사) 간증 예배로 드립니다.
- ◎ **5분 기도:** 성전 건물 이전을 위해 온 성도들이 정오 12시에 합심하여 5분 동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 ◎ **문화행사:** 서울에서 성황리에 공연중인 “넌 특별하단다” 연극 공연이 노회 주관으로 있습니다. 7명의 배우들을 점심, 혹은 저녁 식사로 섬겨주실 성도들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9월 22일(주일예배), 9월 25일(수요일) 오후 7~9시 장소: 본당 주관: 행사진행부
- ◎ **기독교 영화:** 천지창조, 아브라함, 십계, David, Jacob, Esther, 예레미야, 메시아, 마태복음, 나사렛 요셉, 막달라 마리아, 토마스 등 DVD를 무료로 빌려드립니다. 교회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 ◎ **예고:** 다음 주일은 월례회 주일입니다. 각 선교회 임원들은 회원들에게 연락합시다.
- ◎ **감사:** 밀알 장애우를 섬겨준 성도들, 점심 식사로 섬겨주신 캄보디아 공동체 수고하셨습니다.

8월 새벽 기도회 본문

- 1일: 행 21:1~14 주의 뜻이기에 멈출 수 없는 걸음 2일: 행 21:15~26 본질 앞에서 확고함, 본질 아닌 것엔 유연함
- 9일: 행 23:23~35 가장 안전한 곳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16일: 행 26:13~23 어둠에서 빛으로
- 23일: 행 28:23~31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 30일: 몬 1:1~14 사람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교제

루마니아: 김유정선교사
중국: 김강한목사
바누아투: 삼마교회 및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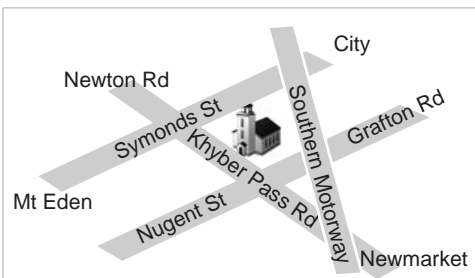
밀알장애우 봉사

설교 방송:
www.youtube.com
/calvaryorgnz
Facebook:
www.facebook.com
/calvarykoreanchurch

예배시간 안내

예 배	시 간	장 소
주일1부예배	주일 PM 1:00	본당
주일2부예배	주일 PM 3:00	Chapel
수요예배	수요일 PM 7:30	본당
새벽기도	금요일 AM 5:50	Chapel
아동부	주일 PM 1:00	Chapel
중고등부	주일 PM 1:00	별관

오시는 길



2013년 8월 25일

15권 34호

교회창립 1999/07/14

www.calvary.org.nz



2013 성령의 은혜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딤후 3:14)

바누아투와 통가를 다녀와서 (1)

내가 서야 할 곳이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뉴질랜드의 삶에 확신이 없고, 이미 뉴질랜드 사람으로 변해버린 아내와 10대의 두 자녀로 인한 서운함과 야속함이 8여 년이 넘는 기러기 아빠의 서러움보다 더 진함을 느끼면서 모든 것을 접고 가족들과 함께 한지 1년 못된 작년 10월 한국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다시 이곳으로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서 아내의 강권을 핑계로,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한 가정의 가장이 아닌가 가장이 가족들과 사는 것도 본분이라는 생각으로 다시 오게 된 이 땅이었다.

주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고 나 자신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던 나의 삶을 바누아투 선교를 준비하는 선교학교에서 돌아보게 되었다. 평생을 교회의 문턱을 드나들면서도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못했던 나로서 선교라는 이름으로 바누아투 땅에 가는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또한, 내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해답도 못 찾고 있는데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용기가 나지 않아 망설이는데 “예배드리는 그분이 누구인지는 알고 예배자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지 않느냐”라는 말에 용기 백배하여 얻어 바누아투땅에 아들과 성도들과 가게 되었다. 나와 다른 외모와 여건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계심을 볼 수 있었던 참으로 귀한 경험의 시간이었다.

바누아투를 다녀온 후 조금씩 다가오는 하나님의 실체를 느끼면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강렬한 마음으로 어색하고 힘들지만 나를 쳐서 복종하는 심령으로 시작한 가정 예배를 통해서 나의 심령이 조금씩 회복되어갈 때 통가 선교사로 있는 박종균 목사님이 건너와서 도와 달라는 요청이 왔다. 박 목사님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분으로 수년 전부터 기도로 서로 교제하는 (특히 집사람과) 동역자이다. 바누아투 다녀온 지 겨우 한 달이 지났는데 또, 그러나 아내의 적극적인 권유와 응원, 그래도 내가 필요하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가기로 결심했다. 선교사님이 나를 부르는 이유는 교회를 짓는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였다. (다음 주에 계속) - 이정인 집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초길보리교회

담임목사: 이태한

Ph: 09 - 369-5077

Ph: 09-475-6312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주일 1부 예배

오후 1시	인도:이태한목사
전주	반주자
예배로 부름	시편 84:1~4 인도자
개회송	찬양대
참회의 기도	다함께
※ 찬송	19장 다함께
※ 성서교독	76. 요한복음 1장 다함께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찬송	93장 다함께
대표기도	박병민장로
성경봉독	사도행전 17:19~25 인도자
찬양대찬양	나무십자가찬양대
설교	아덴 사람들아 이태한목사
찬송	384장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 응답송	살아 계신 주(1,3절) 다함께
※ 축도	이태한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일2부예배 (15:00)

인도: 심창진 목사
 찬양 / 다함께
 기도 / 현석호 장로
 성경봉독 / 합 1:12~2:1
 설교 / 기다리는 자 / 심창진 목사
 찬송 / 주의 이름 송축하리
 헌금기도 / 인도자
 광고 / 인도자
 축도 / 심창진 목사

수요일예배 (19:30)

인도: 이태한 목사
 찬양 / 수요찬양단
 기도 / 오지영 권사
 성경 / 고전 3:4~7
 설교 /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 박성천 목사
 합심기도 / 인도자
 광고 / 인도자
 찬송 / 511장
 주기도 / 다함께

건축헌금 지난주: \$1,002.00

총계: \$633,270.29

◎ 9월 교회알기

찬양 합창제:
9월 14일(토)
 세례식:
9월 15일(주일)
 연합 연극제:
9월 25일(수)
 성찬 주일:
9월 29일(주일)

◎ 9월 예배봉사자

예배안내 : 박병민/이기중
 새신자 안내: 김수원/최희숙
 주차안내: 민광호
 주방봉사: 한상순/김윤숙/장태욱/양윤주/박제란

◎ 기도순서

이번 주 애찬기도: 추미선 권사
 다음 주일 1부: 박제용 장로
 다음 주일 2부: 이민우 형제
 9월 4일 수요일기도: 박후임 집사
 9월 4일 애찬기도: 고성일 장로
 9월 8일 1부: 이광희 장로
 9월 8일 2부: 고성일 장로

금주의 기도제목

1. 교회와 성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넘치는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복음의 감격과 열정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영주권 신청 준비와 승인, 취직과 비즈니스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님의 은혜로 영육의 강건함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도록.

2. 뉴질랜드와 통가를 위해

많은 청소년들이 술과 마약류에 노출되어 있는데 청소년들이 영향을 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통가는 세계에서 몰몬교인 비율이 가장 높는데 몰몬교의 오류가 드러나고, 경건하고 겸손한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갈보리 공동체는 각 나라를 이름으로 하여 공동체 구성원들과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각 공동체의 나라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살피고 기도로 선교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일에 함께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통가에 대하여 (정치 경제 종교를 중심으로)

전체: 통가는 남태평양에 있는 나라로, 공식 명칭은 통가 왕국, 수도는 누쿠알로파로 폴리네시아인이 98%로 절대다수입니다. 170여 개 섬 가운데 36개 섬에만 주민이 거주합니다. 하아파이 제도에 속한 카오 섬은, 토푸아 섬과 같은 화산섬도 있지만, 대부분이 산호섬이고 최대 섬은 남쪽 끝에 있는 통가타푸 섬입니다. 국토가 모두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까닭에 철도는 없으나 푸아아모투 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의 다른 섬과 뉴질랜드, 피지, 오스트레일리아와 연결됩니다. 기온은 평균 18~27도이며 습도는 80% 안팎입니다.

정치: 1900~1970년까지 영국의 보호 국가였으며 입헌군주국으로 왕과 귀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1990년 이후 귀족정치 세력을 제한하려는 운동이 일어나 좀 더 민주적인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경제: 생존형 농업과 관광업이 주 수익이지만 수입이 수출보다 4배나 많으며 수출 대부분은 일본입니다. 해외 통가인의 송금과 원조로 수출입의 차이를 줄이고 있으나 뉴질랜드와 호주 등 여러 나라들로부터 많은 원조에 의존하고 있는 편입니다.

종교: 명백한 기독교 국가이지만 모든 종교에 대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몰몬, 안식교와 같은 이단이 (통가 사람들은 이 종파들을 기독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득세하고 있습니다. 특히 몰몬교는 대량 물량공세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한편 귀족들은 물론 왕도 기독교이라 주일날은 모든 상가는 물론 심지어 공항까지 일하지 않아 성수 주일 하기에는 매우 좋습니다. 국민성은 더운 날씨 탓인지 소극적, 수동적이라 지시받은 일 외에는 할 생각도, 응용도 하지 않는 근면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